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민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외정책의 큰 틀, 특히 FTA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가능하면 방향을 확정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대외경제위원회가 원로들로부터 한 말씀씩 듣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요즘은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경제단체와 연구원들로 구성돼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획단이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변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논의가 실천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해주기 바라며 정책이 큰 방향에서 혼선 없이 안정되게 논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정부로서는 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국익을 위해 뒷받침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하고 오면서 큰 소득이 있다면 하나는 감동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득 없이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속도 있게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의 기업도 민간기업과 적절히 협력해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공무원들에게 욕심만큼 안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점검해보고 내린 결론은 상당

히 열심히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활발한 기업 활동을 보면서 마음으로 감동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 판단이 옳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국익을 위해 뒷받침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요구에 의해,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으로 가야할 단계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FTA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TA가 일반화되면서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밀리고 추방 위기감이 드는 시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수동적으로, 요구에 의해,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으로 가야할 단계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외 경제 전략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잘 했으나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활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 검증해줘야 할 문제이나 그런 관점에서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훌륭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애로점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능력 있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보고를 들으시고 현장 감각이 있는 민간 위원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